

지 상 법 석

“내가 원을 세운 순간”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19

古代祖師 直指人心 見性成佛
고대조사 직지인심 견성성불
如來善逝 隨處安心 六祖的性論見性
여래달마조사적안심 육조적유론견성
只要直下承當便了 沒有看話頭의
지요직하승당변론훈유간화두적
到後來的祖師 見人心不古
도후래적조사 견인심불고
不能安心 多弄機鋒
불능사심타지 다롱기사

甚麼山頭話頭 話頭是說話 頭就是話頭之前
삼마구화두 화두시사화 두취시사화지전
如念阿彌陀佛是句話 未念之前就是話頭
여념아미타불시구화 미념지전취시사화두
所謂話頭 即是一念未生之際
소위화두 즉시일념미생지제
一念才生 已成話尾
일념재생 이성화미
這一念未生之際 叫作不生
這一念未生之際 叫作不生
不生不生 不著不著 不著不著 不著不著
不著不著 不著不著 不著不著 不著不著
불도거 불흔침 불착정 불락공 규작불멸

옛 조사들은 곧바로 마음을 향하게
하여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 했다.
이는 달마조사가 '마음을 가져와보라
견안케 해주리라' 한 것이나 육조께서
오로지 성품을 보는 것만 말씀하신 것
과 같다.
다만 (공부하는 이들이 이를) 곧바로
받아들였을 뿐 화두를 보는 것은 없었
다.
그러나 후세의 조사들은 마음을 보는
게 옛날 같지 않아서 마음으로 죽지 못
하고 애벌살이에 그쳤으며 대개는 거짓
기쁨을 놓칠 뿐이었다.

무엇을 화두라 부르는가. 화는 말이고
두는 말하기 전이니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말은 화요 이를
염하기 전은 두다.
이러바 화두란 곧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을 말함이나 한 생각 일어나면 이미
화미를 이룬다.
저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을 상없는 자
리라 부르니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고요에 집착하지 않고 공에 떨어
지지 않아 이를 '나지 않음에 멸한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每數數他人珍寶 作自己家珍
매대수타인진보 작자기가진
便不得 各立門庭 各出手眼
편不得不 各立門庭 各出手眼

隨時時刻 單單的 一念回光返照
시시각각 단단적적 일념회광반조

“화두란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을 말하니
한 생각 일어나면 이미 화미를 이룬다”

변부독불 각위문정 각출수안
才令學人看話頭
재령학인간화두
話頭(話頭) 如法歸一 一歸何處
화두한다 여민법귀일 일귀하처
父母未生前 如何是我本來面目 等等
부모미생전 여하시아본래면목 등등
但 以念不是誰 爲最普通
단 이념불시수 위최보통

這不生不滅 就叫作看話頭 或照照頭
저불생불멸 취규작간화두 혹조고화두
看話頭 先要發疑情
간화두 선요발의정
疑情是看話頭的場境
의정시간화두적과상
何謂疑情 如觀念佛的是誰 人人都不知道
하위정의 여문염불적시수 인인도지도
是自己念
시자기념

(그들은) 매일 옛 선사의 보물이나
헤아리면서 그것을 제집의 보물로 삼았
으니
저마다 가문의 가치를 세우고 저마다
방편을 지어 학인으로 하여금 화두를
보게하였다.
화두는 매우 많았다. 저 '반법은 하나
로 돌아간다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
는가' 같은 것, '부모 태어나기전 어떤
것이 나의 본래 면목인가'와 같은 것 등
등인데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게 가
장 보편적인 화두일 것이다.

찰나찰나에 오로지 사무치게 한 생각
되돌려 비취 보나니
저 생멸없는 자리를 일러 화두를 본
다. 혹은 되돌려 화두를 비취 본다고 한
다.
화두를 보려면 먼저 의정이 발현해야
한다.
의정이 화두를 보는 지팡이 이다.
어떤 것을 의정이라 하는가.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할때에 사람마다 모두
자기가 염하는 것으로 안다.

龍眼

어느새 50년이 지났습니다.
1946년 10월 15일에 출가하여 어느새 50
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부처님의 제자가
된 몸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가하여 얼마의 세월이
지났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 세월동안 얼마나 수행하고 중생교화에
합했는가 그리고 성불의 공덕을 얼마나 쌓
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50년, 반세기라는 시간을 지내
고 일생의 염원으로 추진중인 불사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야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
니다.

마침 각원사 대웅보전이 목조건물로는
국내최대의 규모로 지어져 그 낙성식을 지
난 10월 15일에 봉행했는데 저는 그날 부
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 속
히 통일이 되어 민족의 평화를 찾게해 달
라고 말합니다. 태조산 각원사의 청동대불
과 대웅보전이 국내에서 최고로 커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하지요. 각원사는 우리
나라가 통일이 되어 남북의 동포가 함께
어우러져 부처님 법을 배우는 동포애의 도
량이고 또 그런 눈이 속히 오길 기원하는

“사홍서원은
모든 불보살님들의
공동적 서원이니
불자면 지켜야 할
불교신행의 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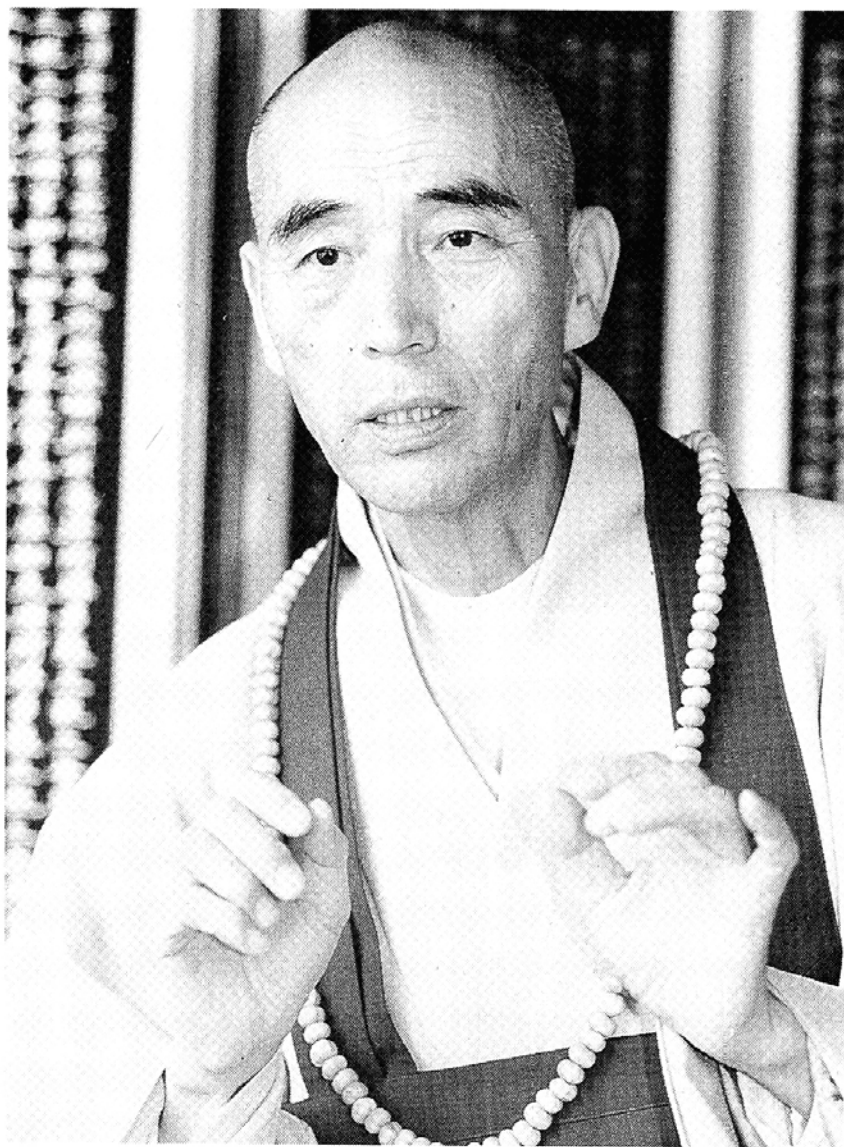
통일염원 기도도량이기 때문이라고 말입
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숙원을 기원하는 도
량의 부처님과 법당이 제일 커야 하는 것
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불상이
크고 법당이 큰 것 보다는 기도하는 마음,
다시말해 염원의 정성이 더 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큰 법당을 짓고 큰 부처
님을 모심으로써 우리의 마음도 키우 보자
는 뜻이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50년전 나는 단장을 주무시는 어머니를
두고 새벽길을 재촉해 출가했습니다. 어머
니는 어느 스님으로부터 나의 사주에 명이
짧아 승려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출
가는 허용했지만 소위 '대처승'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구승으
로 출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탁발을 다니는 한 노스님을
만나서 나의 사정을 얘기 했습니다. 그 노
스님은 '결혼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
니다. 수명장수나 생활의 방편을 도모하기
위한 출가는 절대로 출가라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출가란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닦아
도를 이루려는 것이다. 도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부처가 되어 여러 중생을 건진다는

법인스님
각원사주지

약 력

- 1931년 충무 생
46년 해인사로
출가
마산공고출 나
와 해인대학 동
국대 성균관대서
철학 수업
77년 천안 각원
사 청건 및 청동
대불 조성
87년 8, 대동문
회대서 문학박사
학위 취득
논문집 <사신대
사의 선가 귀감
연구> 등 다수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도력이 높으신 큰스
님들이 많으니 출가를 하려거든 제대로하고
공부도 제대로 해야한다. 그러나 너도
제대로 출가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
씀을 남기고 떠나셨습다. 그래서 나는 어
머니의 의견을 못따르는 죄송함 때문에 고
민을 했습니다만 이미 출가하기로 먹은 마
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새벽에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충무 교차점을 나
와서 해인사가 있는 합천땅을 향해 걸었습
니다.
어느 스님이 길을 안내해 주시는 대로
해인사 계곡을 들어가는데 그 풍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홍류동 계곡은
눈이 쌓여 있었는데 그 설경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 그림속
으로 나는 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
처님 법을 배우려는 출가의 원대한 포부를
안고 말합니다. 가다가 고운 최치원선생의
정자에서 쉬었는데 안내하시는 스님이 최
치원의 글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한번 정
산에 들어가 다시는 속세에 나가지 않으리
라"는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나의 심정과
그렇게 같을 수가 있는지 어린 마음에 그
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결심
을 했습니다. 다시는 속세에 나가지 않고
승려로서의 공부를 다 해보겠다고 말입니
다. 저는 그 출가의 길에서 본 고운 최치원
의 글귀에 감명받아 세웠던 결심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몸이

야 산을 내려와 공부도 하고 불사도 하지
만 마음은 언제나 청산의 수도승으로 있으
니 그 결심이 아주 망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 대한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오늘은
바로 서원을 세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
운데 많은 소원을 갖습니다. 소원이란 무엇
인가. 갖고 싶거나 되고 싶거나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소원이 없는 삶은 어떻
겠습니까. 얼른 생각하면 바랄것이 없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고 할 수 있을 겁니
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 소
원하는 것이 있는 삶이말로 행복한 것입
니다. 좀 비약해서 말하면 소원, 바라는 것

마음이나 알고 살아갑시다
입회동 지음
“어디서 왔소?”
이것이 지금도 나의
‘화두(話頭)입니다.
정가 : 5,000원
당신은 왜 이책을 들었을까요?
생각해 볼수록 복잡(複雜)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해 봅시다
‘진리(眞理)는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세상(世上)의 모든 일은 우연(偶緣)이 아니다’ ‘깊
고 깊은 뜻(意, 意)이 있다’고...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책을 들게 했을까?’
‘나의 손(手, 수)이 이 책을 들었다’
‘나의 눈(眼, 안)이 보았으니까 이 책을 들었다’
‘나의 발(足, 족)이 이곳에 걸어왔으니까, 이 책을 들
게 되었다’
이것이 정말(正答)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 최고의
충격적인 신간
신비한부처의
세계
내가 만드는
행운의부적
운달 위음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운은 이 책안에 있습니다
행운을 잡고 싶은 모든 분들께!
▲ 신년 행운을 잡는 비결부 ▲ 귀인이나 사귀려는 사람을 얻는
▲ 입학, 취직, 승진 등 각종 시험에 인연성취 비결부
▲ 합격하는 비결부 ▲ 사업을 성공시키는 만사형통 비결부
▲ 운전행운을 취복하는 비결부 ▲ 삼성소설 비결부
▲ 연애행운을 비결부 ▲ 인기인기 비결부 ▲ 팔리지 않는 집, 땅, 컴퓨터 잘 팔
▲ 운중행운이 되는 재능을 얻는 비결부 ▲ 리치 하는 비결부
▲ 부자가 되는 비결부 ▲ 화·재앙을 피하는 법과 방법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이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경, 요령,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 법 반 : 요감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등
■ 모집인원 : 30명(선학순)
■ 교육기간 : 3개월(각과정)
■ 원서접수 : 1996년 10월 21일 ~ 11월 19일
■ 개강일시 : 1996년 11월 19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심장법사과정
※ 본원은 초중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儀式教育院
學長 張斗斗
院長 鄭大隱

포켓용
불자
독송집
불자님들께서 항상 지니면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집·제작 하였습니다
■ 기본판·국판판 256p·고급비닐커버
▶ 정가 2,000원
■ 중보판·국판판 352p·고급비닐커버
▶ 정가 2,500원
※ 법보시 하실 사암 환영합니다
우리말
지 장 경
석 일 화 편저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비닐커버
● 범보시가격/4,5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범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출판사 ☎(02)723-4306~7
FAX 738-8682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한국동로터리)